朝鮮朝의 鄕校文庫에 관한 硏究

李 春 熙**

Ⅰ. 序 論

우리나라의 図書 및 印刷, 書籍의 集散, 保存 등 出版文化와 図書館의 歷史를 理解하는데 있어서, 朝鮮의 諸教育機関에 設置되었던 教育文庫가 차지하고 있는 位置는 매우 重要하다고 볼 수 있다. 教育文庫는 그 母体 教育機関의 種類에 따라 대체로 다음 네가지의 類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太学文庫(尊経閣)……
四部学堂文庫…… } 官 学
鄕校文庫……
書院文庫…… 私 学

이들 文庫중 오늘날까지 그 面貌를 어느 程度나마 보여 주고 있는 것은 鄕校文庫와 書院文庫뿐이며, 太学文庫도 現在의 成均館 뒷뜰 一偶에 当時 文庫로 쓰이던 尊経閣 建物만 남아 있을 뿐, 단 한권의 書冊도 伝存하는 것이 없다. 한편 四部学堂에 이르러서는 그 形骸조차 찾아 볼 길이 없다.

**成均館大学校 図書館学科 教授
*本 硏究論文은 1977年度 文教部 学術硏究助成費의 援助로 이루어진것임.

따라서 朝鮮朝의 教育文庫에 대한 올바른 認識과 把握을 위해서는 그 遺形의 推尋이 可能한 現存 書院文庫를 中心으로 다루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書院文庫에 대하여는 지난 1968年에 文教部 学術研究助成費의 援助로 筆者에 依해 이미 研究発表된 바 있음으로, 이번에는 鄕校文庫만을 対象으로 하였으니, 本 研究論文은 前者의 姉妹篇이라고 하여도 좋을듯 하다.

鄕校도 書院과 마찬가지로 다음 세가지의 機能을 가지고 있었다. 그 첫째는 孔子를 위시한 聖賢에 대한 春秋釈尊이고, 둘째는 鄕里子弟에 대한 教育的機能이며 셋째는 知識의 伝達을 위해 書籍과 文献을 保存하여 온 図書館的 機能이다.

그러나 鄕校에 관한 研究는 지금까지 体係的으로 이루어진 바 없으며 있다면 教育史的 立場에서 断片的으로 다루어진 것 뿐이니, 더구나 鄕校文庫에 이르러서는 전혀 関心밖에 있었다.

調査方法에 있어서는 文献調査, 書信連絡, 実地踏査의 세가지를 択하였으며, 所蔵図書가 比較的 많은 全羅道와 忠清道 一部地方은 実地 訪問 調査하였다. 調査期間은 1977年 4月에서 1978年 2月까지이다.

Ⅱ. 鮮初의 儒学教育과 教育文庫의 形成

(1) 鮮初의 儒学

儒教 特히 程朱의 性理学은 安珦 以後 그 門人들에 依해 麗末·鮮初에 걸쳐 漸次 知識層들 간에 普及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新興儒学을 崇尚하는 知識層은 高麗末까지도 経済的으로 地方의 中小地主에 不過하였고, 政治的으로는 一部 新進官僚로서 政界 一偶에 그 地位를 占하고 있었을 따름이었음으로 荘園 仏教를 背景으로 한 旧貴族 勢力에 예속되고 있는 関係에 놓여 있었다.

麗末 仏教의 腐敗堕落으로 말미암은 政治, 社会的 不安과 弊害는 마침내 李成桂의 革命으로 高麗王朝를 滅亡케 하였다. 政權을 장악한 李成桂

는 科田法을 公布하여 田制改革을 断行함으로서, 旧貴族의 経済的 地盤을 完全히 무너뜨렸다. 따라서 新興儒学의 思想的 背景을 가지고 登場한 新進士大夫들은 새로운 土地所有関係의 変化로 이제 그 勢力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経済的 터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政治的으로는 그들이 主導하는 새로운 官僚体制의 国家를 건설하였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国教의 地位를 누려왔던 仏教는 儒教로 代替되었으며, 太祖 李成桂는 新興儒学의 普及과 振興을 위한 諸般 教育制度의 整備를 서둘렀다.

우선 首都 漢陽에는 太学인 成均館을 새로 建立하는 한편 四部学堂을 정비하고 地方에는 鄕校의 建立과 改善에 힘썼으며, 国家의 指導者가 될 人材는 모두 이와같은 儒教教育機関을 通하여 養成될 수 있도록 하였다. 鮮初에 나온 学令을 비롯하여 그 후 勧学事目, 九齋学規, 学校模範, 学校節目등 많은 学校規範이 잇따라 나왔으며, 이들 諸規範에 一貫되고 있는 基本哲学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朱子学이었다.

그리하여 朱子学 中心의 儒学을 가르치는 各級学校는 매우 빠른 速度로 成長하였고, 이와 並行하여 이들 教育機関에는 教育에 必要한 書籍을 蒐集·保管하는 教育文庫가 아울러 出現하게 되었다.

鮮初에 있어서의 教育文庫는 그 母体 教育機関의 類型에 따라 鄕校文庫, 四部学堂文庫, 太学文庫등 세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이중 太学文庫를 除外하고는 그 存在가 극히 微微하였다.

(2) 鄕校 및 四部学堂文庫

鄕校創設의 淵源을 찾아 보면 高麗 仁宗 年間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本格的인 設立은 朝鮮朝에 접어 들면서 부터이다.

다음에 引用한 表〈1〉은 지난 1971年에 成均館大学校 教育学科 研究팀이 現在 南韓에 있는 231개 鄕校가운데 그 創立年度가 확실한 109개 鄕校를 対象으로 作成한 것이다.

이 表에 依하면 鄕校의 増設은 太祖－世宗年間에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即 高麗, 仁宗 以後 麗末까지는 鄕校 設立의 進展이

表〈1〉 鄕校設立年代와 鄕校数

年 代	王 朝	新設鄕校数
1127~1150	高麗仁宗－毅宗	3
1151~1300	毅宗－高宗	0
1301~1350	忠烈－忠定	4
1351~1400	李朝太祖－定宗	24
1401~1450	太宗－世宗	31
1451~1500	文宗－燕山君	9
1501~1550	燕山君－明宗	8
1551~1600	明宗－宣祖	9
1601~1650	宣祖－仁祖	5
1651~1700	孝宗－肅宗	6
1701~1750	肅宗－英祖	2
1751~1800	英祖－正祖	2
1801~1850	純祖－憲宗	2
1851~1900	哲宗－高宗	4
計		109

※ 成均館大学校 文科大学教育学科 編, 全国鄕校現況調査 －鄕校教育에 관한 調査研究－ P. 6 서울, 成均館大学校, 1971

別로 없다가, 鮮初에 들어서면서 부터 급격히 增加하여 太祖－定宗 年間의 24개에 이어, 太宗年間에는 31개로 그 絶頂을 이루고, 燕山君 以後는 다시 떨어져 완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勿論 이 数字는 鄕校의 創立年度가 확실한 것만을 対象으로 하였기 때문에 全体를 意味하는 것은 아니지만, 全体를 対象으로 한다고 하드라도 이와 비슷한 結果가 나오리라고 推測된다.

成宗実録에

「戶曹判書魚世恭等, 來啓曰, … 鄕校則凡三百餘邑,
雖各給一字, 尙三百餘字, 恐軍資減損」[1]

라고 한 것이라던가 또는

「上曰戶曹言, 州府郡縣凡三百餘, 若併給鄕校学田,
則多損軍資需, 以是不給」[1]

라고 한 것을 보면 州府郡縣 凡三百餘邑에 이미 鄕校가 設立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表2〉 參照). 다시 말하면 鄕校는 高麗때부터 있어 왔으나, 그 数가 급격히 增加한 것은 鮮初이며 成宗年間에는 州府郡縣마다 鄕校가 設立되어 国家가 必要로 하는 鄕校의 数를 이미 다 確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鮮初에 新設된 이들 鄕校에 書冊이 蒐集, 增加되어 하나의 集書 또는 文庫로 形成되기 까지에는 상당한 時間이 흘러야 했다.

한편 中央의 四部学堂(五部学堂)도 太祖-定宗 年間에는 仏寺를 빌려 쓰는 등 高麗末과 別差異가 없었으나, 太宗-世宗年間에 이르러 점차 独立

表〈2〉 成宗年間의 州府郡縣 및 教授·訓導, 鄕校数

道別	府尹	大都護府	牧	都護府	郡	縣(令)	縣(監)	教授	訓導	鄕校
京 畿			4	7	7	5	14	11	26	37
忠 清			4		12	1	37	4	50	54
慶 尙	1	1	3	7	14	7	34	12	55	67
全 羅	1		3	4	12	6	31	8	49	57
黃 海			2	4	7	4	7	6	18	24
江 原		1	1	5	7	3	9	7	19	26
永 安	1	1		11	5		4	13	9	22
平 安	1	1	3	6	18	8	5	11	31	42
計	4	4	20	44	82	34	141	72	257	329

※ 経国大典(吏典, 外官職条) 및 東国輿地勝覽에 依拠하여 作成하였음.

1) 成宗実録, 巻一百七十三, 十五年甲辰十二月乙卯條

建物을 갖추게 되었다. 即 南部学堂은 太宗11年에, 中部学堂은 世宗4年에 各各 独立建物을 갖게 되었고, 그밖에 西部·東部의 学堂도 世宗 17年까지는 모두 세워지게 되었다.[2]

그러나 北部学堂만은 끝내 세우지 못하였고, 五部学堂이란 말은 李光麟教授가 지적한 바와 같이 「本是 高麗末以来 六部에 学堂 하나씩을 設置함을 理想으로 하고 있었던 結果로 생겨난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 漢城府下五部라는 行政区에 둔 学堂이란 뜻도 가지고 있었다.[3]

아뭏든 이들 学堂은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寺院建物을 빌려 쓰거나, 或은 다른 学堂의 齋舍를 함께 쓰는 등 매우 狹小하고 不便한 환경속에서 経営되었음으로 文庫가 形成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겠다.[4] 따라서 이들 四部学堂이나 鄕校에 多小나마 書冊이 蓄積되기 시작한 것은 齋舍가 完備된 世宗 以後가 아닐까 한다.

한편 国家에서도 이들 教育機関에 書冊을 備置시키고자 계속적인 努力을 傾注하여 왔음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記録을 通해서도 알 수 있다.

「礼曹啓 平安道慈城郡, 新設鄕校, 未有書冊
請令諸道板子所在官, 印四書三経, 各二件以送従之」[5]

即 書冊이 없는 新設鄕校에는 優先的으로 나라에서 冊을 찍어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教育上 꼭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書籍은 国内에 없을 경우 멀리 中国에서 까지 貿買하여 오기도 하였다.

「礼曹啓, 四部学堂, 職専小学之教, 其入学生徒, 先授小学…
本朝刊本小学, 音訓註解未備, 唯集成小学, 音訓註疏, 名物
図象, 極明備 童蒙之輩, 可以易知, 請以済用監苧麻布, 授入
朝使臣, 買来集成小学一百件, 従之」[6]

2) 太宗実録, 巻二十二, 十一年辛卯十月戊子条：世宗実録, 巻十八, 四年壬寅十二月 乙未条：上掲書, 巻七十, 十七年乙卯十一月戊辰条
3) 李光麟著, 『鮮初의 四部学堂』歷史学報, 第16輯, P. 41~42
4) 「礼曹啓, 五部学堂東西齋, 低小隘狹, 請為置造成色, 以増広之, 上命撤留後司廃寺材瓦造成」世宗実録, 巻四, 元年己亥七月壬子条
5) 文宗実録, 巻七, 元年辛未四月甲戌条
6) 世宗実録, 巻三十, 七年乙巳十二月戊子条

同種의 冊을, 即 위의 경우 「集成小学」이라는 冊을 一百部나 사오게한 것을 보면 童蒙教育에 대한 国家의 配慮가 어느 程度인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鄕校나 四部学堂에 頒賜된 書冊들은 小学을 위시하여 四書三経 등 主로 当時 教科書로 쓰이던 것들이며, 이밖에 다음 例와 같이 国家에서 特別히 印行한 「東国正韻」과 같은 参考図書類도 있었다.

「頒東国正韻于諸道及 成均館四部学堂」[7]

周知하는 바와 같이 世宗은 崇文政策을 내세우고, 많은 書冊을 印行頒賜하여 学問과 文化의 発展에 크게 寄與한 英邁한 君主였다. 따라서 教育機関에 대한 書籍頒賜의 記録도 特히 世宗年間에 자주 나타나고 있다. 뒤에 引用한 世宗実録의 記事以外에도 特히 鄕校의 書冊에 관한 다음과 같은 記録들은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같이 鮮初의 新設鄕校나 四部学堂 등 諸教育機関에 書冊이 모여지기 시작한 것이 世宗 以後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現象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伝旨各道監司, 性理大全及四書三経大全…… 実理学之淵源, 学者当先講究者也…… 欲印置于鄕校者, 収其紙以送, 則皆許印送」[8]

「辛巳, 印直解小学二百本, 頒賜各官鄕校及文臣」[9]

「議政府據礼曹呈啓, 平安道茂昌虞芮渭源等郡, 鄕校生徒, 教訓四書小学等冊, 依他例題給, 従之」[10]

以上은 朝鮮王朝実録에 散見되는 記録만을 対象으로 한 것이지만 이밖에도 地方의 官衙나 門中등에서 刊行되는 書籍들도 우선적으로 寄贈받았

7) 上揭書, 巻一百二十二, 三十二, 三十年戊辰十一月庚午条
8) 上揭書, 巻七十, 十七年乙卯十一月癸亥条
9) 上揭書, 巻九十四, 二十三年辛酉十月辛巳条
10) 上揭書, 巻一百七, 二十七年乙丑正月癸卯条

을 것이 확실하니, 時間이 흐름에 따라 教育機関인 郷校에 書冊이 계속 増加되어 갔을 것은 너무도 当然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들 各郷校나 四部学堂의 蔵書規模가 과연 어느 程度였는가는 확실치 않다. 다만, 成宗朝 韓明澮의 다음과 같은 啓에서

「領事韓明澮啓曰……州府郡縣, 学校疎濶…請自今, 郷校室宇書冊. 並録解由, 又申明学校之令, 以振文風, 以納之」[11]

라고 한 것을 보면, 即 書冊紛失의 防止를 위한 조치로 各郷校에서는 書籍目録을 作成하여 철저한 引継引受를 하도록 하였으니, 郷校에 따라서는 相当量의 書冊을 保有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全体的으로 볼 때 鮮初의 郷校나 四部学堂의 教育文庫는 극히 初歩的인 形成段階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보다 妥当한 見解일지도 모르겠다.

Ⅲ. 教育規範과 郷校文庫의 性格

어느 時代이던 간에 한 教育機関의 教育内容과 図書館은 不可分의 密接한 関係를 가지고 있었다. 郷校文庫의 性格을 보다 뚜렷이 把握하기 위해서는 郷校에 관한 諸教育規範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鮮初에 制定된 学令과 経国大典은 朝鮮朝 儒学教育의 基本이 되는 規範이라고 할 수 있으니 우선 読書에 관한 条項을 보면

「常読, 四書五経及諸史等書, 不挾荘老仏経 雑流百家子集等書, 違者罰」[12]

라고 하였다. 即 読書의 範囲는 四書五経과 諸史等書로 制限되어 있으며, 老荘의 図書나 仏経 其他 雑流百家의 著書들은 보지 못하도록 規制하고 違反하면 罰한다고 하였다. 学令은 本来 太学 即 成均館의 儒生들을 위해

11) 成宗実録, 巻五十, 五年甲午十二月癸未条

12) 増補文献備考, 巻二百七, 学校考六, 学令条.

制定된 것이지만 그 根本 敎育方針은 鄕校에도 그대로 適用되는 것임은 勿論이다. 特히 儒学을 처음 공부하는 童蒙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가르쳐야 할 科目은 小学이었다. 太宗 7年에 權近은 勸学事目 8条를 올렸는데 그 중 第6条에

「一, 小学之書, 切於人倫世道, 為甚大, 今之学者, 皆莫之習, 甚不可也, 自今京外教授官, 須令生徒, 先講此書, 然後方許他書 其赴生員之試, 欲入大学者, 令成均正録所, 先考此書通否, 乃許赴試, 永為恒式」[13]

라고 하였다. 即 京外의 敎授官들은 모름지기 生徒들에게 小学을 먼저 講하고 然後에 다른 冊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이며, 生員의 考試에 나아가 太学에 入学하고자 하는 者는 成均館 正録所로 하여금 먼저 小学에 通했는가 그 여부를 考査한 후 考試에 나아갈 것을 허락하도록 하였다.

한편 宣祖15年에 定해진 「学校模範」 第3条에는 다음과 같이 読書의 順序까지 詳細히 規定하고 있다.

「三日……其読書之序, 則先以小学, 培其根本, 次以大学及近思録, 定其規模, 次読論孟中庸五経, 間以史記及先賢性理之書, 以広意趣, 以精識見, 而非聖之書勿読, 無益之文勿観[14]

여기에서도 「小学」이 根本을 培養하는 図書로서 무엇보다도 先読해야할 冊으로 強調하고 있다. 다음은 大学과 近思録을 읽고 그 다음에 論, 孟, 中庸, 五経의 順으로 공부하면서 간간히 史記와 諸賢의 性理学에 관한 図書를 읽는다. 여기에서도 非聖之書는 읽지 말라고 하였고 無益之文을 보지 말라고 禁하고 있다.

위의 学校模範보다 좀 먼저 나온 京外学校節目중에도

「先誨小学 能明句読 稍解文理然後 次教以大学 論語 孟子 中

13) 太宗実録, 巻十三, 七年丁亥三月戊寅条.
14) 増補文献備考, 巻二百七, 学校考六, 宣祖15年条.

庸 陞之於学」[15]

라고 하였다. 即 小学을 먼저 가르쳐 完全히 句読을 익히게 하고, 그 文理가 어느정도 理解된 然後에 大学, 論語, 孟子, 中庸의 順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鄕校生徒들의 読書範囲는 小学을 위시하여 四書와 近思録 程度였고, 다음이 三経 또는 五経의 順으로 읽게 된다. 따라서 鄕校文庫의 其本図書도 자연히 小学과 四書三経으로 構成될 수 밖에 없었다. 前章에서도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国家에서 外方鄕校에 보낸 冊가운데는 小学이 가장 많았다. 이와같이 鄕校는 極히 制限된 教育内容을 가르치는 童蒙을 対象으로 한 教育機関이었음으로 蒐集되는 蔵書도 書院등 다른 教育機関에 比해서는 그 範囲가 좁고 多様性이 없었다.

Ⅳ. 官学의 頽弊와 中期 以後의 鄕校文庫

(1) 官学의 頽弊

明宗元年(1546)에 制定頒布된 京外学校節目은 서울과 地方 全国学校에 適用되는 教育規範이었다. 이중에서 鄕学과 童蒙教育에 関한 規定을 中心으로 그 大要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鄕校의 教育은 生員, 進士中에서 年齢과 徳望이 있고 教育할 수 있는 者를 各道監司로 하여금 歳首에 薦挙啓聞케 하여 吏曹에서 詮衡하고 재주의 有無를 不拘하고 欠員이 있으면 補充採用한다.

鄕学勧課之方, 生員進士中, 有年徳, 可訓誨之人, 令各道監司, 歳首, 薦挙啓聞, 銓曹, 勿拘才有無, 随闕填補[16]

위의 『勿拘才有無 随闕填補』라고 한것으로 미루어 보드라도 当時 鄕校의 訓導欠員이 얼마나 많았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한편 鄕校教授

15) 上掲書, 巻二百三, 学校考二, 明宗元年条.
16) 上掲書, 同条.

訓導의 質的 低下를 意味하는 것이니 鄕校를 輕視하는 当時 儒林社会의 風潮를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 鄕校의 教員이 될만한 有資格者들은 그 자리를 願하지 않았고 오히려 無資格者들이 다음 引用文에 나타난 바와 같이 때로는 賂物을 関係書吏에게 주어 任用받는 事例도 있었다.

「金宇顒啓 , 臣居鄕, 見鄕校廢弛甚矣, 訓導差遣時, 只用宰臣行下, 或賂書吏而得之, 安知学校事乎, 用此教授之官, 為人所賤悪, 士人, 若被委差, 則以為羞辱矣, 若欲教此, 当以薦挙公選差遣, 雖未盡得人, 而其事体得正, 当教得一半矣」[17]

그리하여 점잖은 선비들은 鄕校 教員으로 任用되는 것을 羞辱으로 여기었다. 따라서 師表가 될만한 有資格 教員이 없는 鄕校에 生徒 역시 入学을 꺼리고, 名望이 높은 스승을 찾아 그들이 경영하는 書堂이나 私齋 또는 書院 등으로 入学하였다. 다음 引用文에 나타난 바와 같이 鄕校의 頽弊는 成宗朝 以来 점점 甚하여져 中宗 明宗 年間에 와서는 鄕校 申明에 관한 論議가 朝廷에서 자주 일어났다.

그리하여 中宗以後는 書院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그 数는 急速度로 增加하여 肅宗年間에 와서는 600餘개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書院이 크게 発達한 것은 누적되어온 鄕校의 頽弊가 가장 큰 原因의 하나였다고 여겨지며, 또한 鄕校는 書院의 增加와 発達로 더욱 그 빛을 잃어가게 되었다.

이와같이 書院을 重視하고 鄕校를 輕視하는 風潮는 鄕校文庫의 発達을 沮害하는 要因이 되었다. 오늘날 남아 있는 書院文庫만 보더라도 그 規模나 藏書量에 있어서 鄕校文庫가 比較될 수 없을만큼 엄청난 差異가 있다.

「郡縣鄕校, 則守令慢不之察, 学舍退敝, 儒士無教, 而士習日壞…, 請降諭諸道, 申明之」[18]

「求礼縣監安處順辭…, 臣嘗見聞, 州郡鄕校, 已為無用」[19]

17) 宣祖修正実録, 卷12, 11年 戊寅四月壬午条
18) 成宗実録, 卷一百五十七, 十四年癸卯八月丙子條
19) 中宗実録, 卷三十二, 十三年戊寅三月戊戌條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成宗朝때에 이미 「学舍退敝」니 「儒士無教」니 하는 말들이 보이고, 中宗朝에 와서는 「州郡鄕校, 已為無用」이라는 表現이 나올 程度로 鄕校의 退弊가 極甚하여 갔으며, 마침내는 鄕校가 그 設立의 意義를 喪失하고, 軍役을 避하는 場所로까지 타락하였다.

「今之校生, 皆避軍役者也, 士族子弟則名為業儒, 而不赴鄕校, 以鄕校為下流之所聚而羞入焉, 若依前日勸學節目, 盡黜校生之不學者, 微賤者以補軍額」[20]

即 요즈음의 校生들은 모두가 軍役을 避하는 者들이니, 不学者는 勸学節目에 따라 軍額에 補하라고 하였으며, 한편 다음 引用文에서도 地方의 校生들은 儒籍에 이름만을 걸어놓고 学校에 가지 않으니 나이가 거의 六十이 되어도 一字無識이니 鄕校는 避役의 땅이 되었다고 하였다.

「外方校生, 托名儒籍, 年幾六十, 而不識一字, 故以鄕校為避役之地矣, 幸有解文者, 反以托名鄕校為愧,… 則國家設鄕校之意, 徒文具而已」[21]

(2) 鄕校文庫의 管理

鄕庫文庫의 收書나 管理는 鄕校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関係文献의 不足으로 이를 상세히 比較하여 다 밝힐 수는 없다. 다만 여기에서는 文庫管理에 대한 規程을 따로 定하여 施行한 바 있는 全州鄕校를 中心으로 그 一端을 살펴 보는데 끝이고자 한다.

全州鄕校에 있어서도 收書의 方法으로는 寄贈과 購入 두가지가 있었으며, 收録된 図書들은 蔵書印을 찍고 目録을 作成하여 保管, 利用케 하였으며, 図書의 合理的인 管理를 為해 "希顯堂書冊節目"[22]이라는 一種의"図書館規則"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

20) 上揭書, 卷二十九, 十二年丁丑八月乙丑條
21) 上揭書, 卷八十一, 三十一年丙申正月丁卯條
22) 希題堂書冊節目, 写本, 1冊, 全州鄕校(己丑十一月)

「自本堂收捧秋稅 貿得 鴻史, 名臣錄, 唐詩, 杜律, 各一帙, 前後書冊, 合計為二百九十九卷也, 目錄付記, 牖列于後, 依節目踏印, 以為永久遵行事」[23]

위의 引用文에 나타난 바와 같이 図書購入費는 主로 每秋收期 收稅의 一部로써 充當되었고, 目錄은 図書利用의 便宜를 위해 누구나 볼 수 있는 場所 即 希顯堂 後面에 陣列(牖列于後)해 두게 하였다.

따라서 이 目錄은 "Inventory"用을 兼한 閱覽目錄의 一種이라고 볼 수 있겠다.

購入에 依한 図書의 增加率은 극히 낮은 편으로 다음 引用文에 나타난 바와 같이 庚午~己丑年間(어느 年代인지 확실치 않으나 正祖 또는 純祖때의 庚午~己丑年間으로 推定됨) 即 19年 동안에 180餘冊을 購入하였으니, 年平均 10冊 未滿이라고 할 수 있겠다. 勿論 이 数字는 극히 部分的인 年代를 対象으로 하였기 때문에 全体性을 欠하고는 있지만 「已為百八十餘卷之多矣」라는 表現으로 보아 購入成績이 매우 좋았던 때라고 여겨진다. 또한 이는 全州鄕校만을 対象으로 한 것이지만 이 鄕校가 府에 位置한 代表的인 鄕校의 하나라는 点을 고려할 때, 이 보다 규모가 작은 郡縣의 鄕校들은 藏書增加率에 있어서 더욱 낮아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一鄕老士宿儒齊會, 爛商以為買置書冊之道, 逐年收稅, 量財貿冊, 自庚午至于今己丑春, 已為百八十餘卷之多矣」[24]

寄贈의 事例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特히 全州鄕校의 경우는 寄贈에 관한 매우 흥미있는 規程이 있었다.

「一、居接儒生, 讀是書, 成就者, 出於采途, 則初到官, 必備置七書一帙 于本堂, 是齊」[25]

23) 上揭書, 序.
24) 上揭書, 序.
25) 上揭書, 節目第9條.

即 鄕校에 居接한 儒生으로서 이 冊들을 읽고 成功한 者가 栄達의 길에 올라 처음 官에 到任하게 되면 반드시 七書 한 帙을 本堂에 備置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밖에 寄贈 事例로는 中央관리나 地方官衙 등에서 必要한 冊을 印頒하는 경우와, 또는 隣近門中 등에서 文集類를 刊行하여 書院, 鄕校 등에 送付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겠다. 扶餘의 林川鄕校같은 데서는 다음과 같이 印頒書冊에 관한 別途 節目을 作成하여 校生들로 하여금 誦讀에 힘쓰도록 하고, 文理未達者에 대해서는 罰을 付하기도 하였다.

「印頒書冊, 只是一件, 人人輪覽, … 文理之未達者, 則付罰於倫堂之上…」[26]

蔵書의 管理는 全州鄕校의 경우 매우 철저하였다. 앞에서 言及한 바 있는 希顯堂書冊節目의 대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第1条에서는 七書의 冊数를 明示하고, 第2条에서는 蔵書印을 每冊 第1張과 末張에 찍어 他冊과 区別하도록 하였다. 第3条는 図書의 保管에 관한 것으로 冊마다 表紙를 하고 그 위에 別紙를 붙여 櫃에 保管하고 櫃는 자물쇠로 잠궈 두며 그 責任은 庫直이 진다. 第4条에서 第6条까지는 図書의 貸出에 관한 事項으로 그 範囲와 節次를 상세히 規定하고 있다. 即 儒生은 언제라도 図書의 閲覧이 可能하나, 비록 学任이나 居接儒生의 가까운 親戚이라도 사사로히 冊을 주고 받거나 鄕校의 遊藝門 밖으로 出入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図書의 紛失防止를 위해 그 貸出節次도 매우 까다로운 편이었다. 儒生이라도 図書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庫直이 있는 곳에 가서 閲覧表(手標)를 써주고 그런 然後에 櫃를 열어 冊을 貸出 받아야 하며, 閲覧을 마친 후 冊을 返納할 時에는 冊을 櫃에 다시 넣은 後 먼저 써 준 閲覧表를 되돌려 받도록 하였다. 만일 貸出한 図書를 紛失하였을 경우에는 貸出中인 儒生이 責任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하였다.

26) 嘉林鄕校誌 ; 規約門條(嘉慶 5年 4月24日) 忠南扶餘, 林川鄕校, 1972

비록 營府의 分付로 図書의 貸出을 要求 받았을 경우라도 이는 禮吏의 弄奸에 不過하니 일체 応하지 말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鄕校의 図書는 오늘의 学校 図書館이 그러한 것처럼 教育機関의 学生 即 儒生 위주로 閲覧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図書의 紛失防止를 위한 諸般規程에 있어서도, 即 蔵書印, 閲覧表 등의 使用과 紛失図書에 대한 보상책임 등 오늘의 그것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겠다.

第7条에서는 汚損된 冊의 随時 補修에 관한 事項을 다루었고, 第8条는 引継引度에 관한 規程으로 学任이 交遞할 時에는 巻数를 일일히 살펴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해야하며, 단 1冊이라도 遺失이 있으면 해당 学任이 보상토록 하였다.

第9條는 図書의 寄贈에 관한 事項으로 前述한 바와 같다.

이와같이 全州鄕校는 模範的이고 철저한 文庫管理를 하여 온 鄕校의 하나이지만 오늘날 当時 書冊目録(附録Ⅱ. 参照)속에 들어 있는 단 한권의 冊도 伝해 주지 못하고 있다.

鄕校는 19世紀末 以来 또 한번의 荒弊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新文化의 수입과 더불어 近代学校의 成立, 所謂 韓日合邦 등 정치·경제·사회의 급격한 変化로 말미암아 鄕校는 그 本来의 教育的 機能을 점차 喪失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鄕校는 一般社会의 関心 밖으로 밀려나 한낱 旧時代의 遺物로 남게 되었으며, 春秋享祀만이 一部 儒林들에 依해 지켜져 오고 있을 따름이다.

鄕校의 荒弊가 날로 甚하여지 감에 따라 一部 鄕校에서는 1920年代를 前後하여 教育的 機能의 存続을 為한 한 事業으로 近代図書館을 設立하기도 하였다. 그 一例를 들면 다음 表와 같다.

簡易図書館, 新聞図書閲覧所, 図書縦覧所 등 그 名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極히 작은 規模의 簡易私立図書館 들이었으나, 우리나라 図書館史上 이들 도서관이 지니고 있는 바 意義는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鄕校財産에 依해 設立된 이들 私立図書館들은 日帝下의 여러가지 社会的

表〈3〉 鄕校財産에 依해 設立된 図書館[27]

道別	設立者	設立年度	名稱	位置
慶南	咸安鄕校	1923. 9	咸安簡易図書館	咸安公立普通学校内
〃	蔚山鄕校	1922. 9	蔚山簡易図書館	蔚山郡 蔚山面
〃	密陽鄕校	1925. 6	密陽図書館	密陽郡 密陽面
〃	東萊鄕校	1923. 8	東萊簡易図書館	東萊郡 東萊面
〃	固城鄕校	1928. 5	固城簡易図書館	固 城 郡
〃	南海鄕校	未詳	南海郡簡易図書館	南海公立普通学校内
〃	山清鄕校	未詳	山清図書館	山清郡 山清面
全南	谷城鄕校	1925. 9	谷城図書縱覽所	谷城郡 谷城面
江原	襄陽鄕校	未詳	襄陽図書館	襄陽郡 軍餉里
〃	三陟鄕校	未詳	三陟簡易図書館	三陟郡廳内
平北	泰川鄕校	1924	新聞図書閱覽所	泰川郡 泰川面
〃	熙川鄕校	1924	新聞図書閱覽所	熙川郡 熙川面
〃	寧辺鄕校	1924	新聞図書閱覽所	寧辺郡 寧辺面
〃	博川鄕校	1924	新聞図書閱覽所	博川郡廳
〃	鉄山鄕校	1924	新聞図書閱覽所	鉄山郡 鉄山面
〃	楚山鄕校	1924	新聞図書閱覽所	楚山郡 楚山面
〃	慈城鄕校	1924	新聞図書閱覽所	慈城郡 慈城面
〃	厚昌鄕校	1924	新聞図書閱覽所	厚昌郡 厚昌面

制約과 財源의 不足으로 經営難에 빠져 오래 持続되지 못하였다.[28]

27) 朝鮮之図書館, 第3巻第4号. p. 29-32(1933. 10)
上 揚 書, 第4番第6号. p. 22-24(1935. 8)
이 表는 한 例를 들기위해 作成한 것임으로 위의 資料에 나타난 것만을 対象으로 하여 転記하였음. 보다 자세한 内容은 朝鮮総督府統計年報 参照.

28) 一例를 들면 密陽図書館은 1935年에 閉館하였다.
"朝鮮之図書館"의 閉館記事는 다음과 같다.
「同館은 4, 5年前부터 不景気로 말미암아 経営難에 빠져 閉館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르렀다.」
朝鮮之図書館. 第4巻 第4号(1935年1月) P. 35.

V. 鄕校文庫의 現況

現在 南韓에 存續하고 있는 鄕校數는 모두 231개로 이를 道別로 나누어 보면 (表〈4〉參照) 慶北이 43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忠南 38, 京畿30의 順이며, 가장 적은 곳이 江原15와 濟州3이다.

이들 231개 鄕校중 實地 踏査와 또는 書信等의 連絡方法에 依해 藏書의 有無와 그 內容이 把握된 곳은 127개処(全体의 約 54%)이다.

이들 127개의 鄕校 중 약 24%에 해당되는 31개의 鄕校는 冊이 전혀 없다고 回答하였다. 그 理由로는 거의가 다 六·二五 事変의 被害를 들고 있다.

우리 나라의 典籍은 壬辰乱 때에 가장 큰 被害를 입었고 그후 丙子胡乱 등 크고 작은 乱離가 잇따라 있기는 하였으나 보다큰 被害는 日帝時代와 六·二五事変때였다. 鄕校의 경우도 例外일 수는 없으니 위의 24%는 回答이 온 127개 鄕校의 일부이지만 回答이 없는 104개 鄕校를 対象으로 한다면 24%를 훨씬 上廻한 것으로 推測된다. 回答이 없는 鄕校의 大多数는 그 理由가 아마도 回答할만한 資料 즉 冊을 所藏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表〈4〉 全国鄕校分布 및 回答鄕校数

道別	서울및 京畿	江原	忠北	忠南	慶北	慶南	全北	全南	濟州	계
鄕校数	30	15	18	38	43	29	26	29	3	231
回答鄕校数	15	11	10	22	20	20	16	11	2	127
百分率	50%	73%	56%	58%	47%	69%	62%	38%	67%	55%

表〈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27개 鄕校중 단 한卷의 冊도 保管하고 있지 않은 곳이 31개이고 나머지 96개 鄕校의 總藏書数는 244종 7820冊이다. 이 중 50冊以上을 保管하고 있는 곳이 38개로 30%에 不過하다.

100冊 以上은 26개로 21%이며, 200冊 以上은 10개로 8%이고 500冊以上이 3개(이중 1개는 482冊)에 不過하여 2%이다. 이를 道別로 보면 200冊以上을 保管하고 있는 鄕校는 全北이 5개로 가장 많고, 慶南이 3개 忠南, 全南은 各1개 이다. 가장 많은 冊을 保管하고 있는 鄕校는 全北의 南原鄕校로 150種 745冊이며, 다음이 全北의 順天으로 148種 581冊이다.

表〈5〉鄕校文庫所蔵図書数

道別	鄕校名	版本		写本		其他		合計		備考
		種数	冊数	種数	冊数	種数	冊数	種数	冊数	
京畿	南陽	4	32	6	11			10	43	
〃	仁川	4	4	12	31			16	35	
〃	富平	2	3	4	8			6	11	
〃	金浦	3	3	3	3			6	6	
〃	喬洞	2	2	2	12	7	7	11	21	
〃	坡州									六・二五時焼失
〃	交河									所蔵図書없음
〃	楊州	1	1	8	12	14	20	23	33	
〃	砥平	2	5			2	4	4	9	
〃	驪州									六・二五時流失
〃	利川									六・二五時焼失
〃	廣州			12	9			12	9	
〃	安城	5	58	1	5	1	1	7	64	
〃	振成									所蔵図書없음
〃	積城									〃
合計		23	108	48	101	24	32	95	241	

江原	洪川	18	29			3	7	21	36	
〃	橫城	5	5	1	1	2	2	8	8	
〃	寧越	14	17			4	5	18	22	
〃	旌善	18	22	4	4	4	4	26	30	
〃	江陵	6	7			1	1	7	8	
〃	三陟									所藏図書 없음
〃	襄陽									六・二五時 被火
〃	杆城	2	8					2	8	
〃	楊口	9	10	7	7	9	9	25	26	
〃	鐵原									六・二五時 燒失
〃	華川									〃
合計		72	98	12	12	23	28	107	138	
忠北	淸州	10	42	4	4	2	2	16	48	
〃	文義	3	6	10	11	1	1	14	18	
〃	報恩	4	35	3	3	2	2	9	40	
〃	永同	18	34	3	3	1	1	22	38	
〃	黃澗	10	104	7	13			17	117	
〃	槐山	2	2	2	2	3	3	7	7	
〃	延豊									六・二五時 燒失
〃	淸安									所藏図書 없음
〃	忠州	5	12	1	1	2	3	8	16	
〃	堤川	17	36			26	108	43	144	
合計		69	271	30	37	37	120	136	428	
忠南	鎭岑	1	2	1	1			2	3	
〃	燕岐	21	33	21	34	3	3	45	70	
〃	公州	43	211	13	25	5	5	61	241	
〃	連山									所藏図書 없음
〃	扶餘			3	3			3	3	

忠南 林川									所蔵図書 없음
〃 石城									〃
〃 舒川	15	33	2	2			17	35	
〃 韓山									六・二五時 紛失
〃 庇仁	11	16	5	5	1	1	17	22	
〃 鰲川	2	3	1	1	1	1	4	5	
〃 定山	16	66	4	15	2	4	22	85	
〃 洪州	13	17	3	5	3	3	19	25	
〃 結城	6	25	2	4			8	29	
〃 禮山	3	13					3	13	
〃 德山	5	21	3	3			8	24	
忠南 泰安	15	54			8	10	20	64	
〃 洗川									六・二五時 被襲
〃 溫陽	1	2					1	2	
〃 新昌	6	9			3	3	9	12	
〃 天安	1	7			1	1	2	8	
〃 錦山	21	114					2	114	
合計	117	626	58	98	27	31	262	755	
慶北 大邱	9	16	2	2	13	13	24	31	
〃 軍威									
〃 比安	17	55			1	1	18	56	
〃 安東									六・二五時 燒失
〃 青松	3	3			2	2	5	5	
〃 寧海									六・二五時 紛失
〃 迎日	6	6	1	1	2	2	9	9	
〃 清河	13	29			3	12	16	41	
〃 興海									六・二五時 燒失
〃 長鬐	10	19			1	1	11	20	

慶北 永川	16	17	9	12	5	5	30	34	
〃 新寧									所藏図書 없음
〃 慶山			5	5			5	5	
〃 河陽	10	61	3	6	3	4	16	71	
〃 漆谷									六・二五時 燒失
〃 聞喜									所藏図書 없음
〃 聞慶	5	6	3	5	1	1	9	12	
〃 醴泉									六・二五時 紛失
〃 順興	8	15	7	7			15	22	
〃 平海	7	13	3	3	1	1	11	17	
合計	104	240	33	41	32	42	169	323	
慶南 東萊									所藏図書 없음
慶南 晋州	17	25	3	3	1	1	21	29	
〃 宜寧	37	121	1	1			38	122	
〃 咸安									六・二五時 燒失
〃 漆原			8	10			8	10	
〃 靈山	2	3					2	3	
〃 彦陽	13	52	1	6			14	58	
〃 金海									解放後被害
〃 巨濟	15	134					15	134	
〃 昆陽									六・二五時 燒失
〃 南海	11	166	3	36			14	202	
〃 河東	50	267	12	16	1	1	63	284	
〃 山清	48	302			1	1	49	303	
〃 丹城	25	107	5	5			30	112	
〃 咸陽	45	140	1	1			46	141	
〃 安義	33	96	4	4	11	14	48	114	
〃 居昌			2	11	1		2	11	

慶南	陜 川	12	173			3	3	15	176	
〃	三 嘉	25	119	15	35	1	1	41	155	
〃	草 溪	14	113	2	2			16	115	
合計		347	1818	57	130	18	21	422	1969	
全北	全 州	23	40	20	22	5	6	48	68	
〃	高 山			18	19			18	19	
〃	鎭 安	30	46					30	46	
〃	龍 潭	39	213	5	9			44	222	
〃	茂 朱	47	289	3	3	3	3	53	295	
〃	長 水	45	174			4	5	49	179	
〃	南 原	148	743	2	2			150	745	
〃	雲 峰									所藏図書 없음
〃	古 阜	21	41			2	4	23	45	
〃	高 敞	131	463			15	19	146	482	
〃	茂 長	25	231	7	7	5	12	37	250	
〃	扶 安	15	92	1	1			16	93	
〃	金 堤	11	18			3	3	14	21	
〃	咸 悅									所藏図書 없음
〃	龍 安	16	22	7	10	9	12	32	44	
〃	萬 頃	37				3	3	40	107	
合計		588	2476	63	73	49	67	700	2616	
全南	光 州	39	102			9	26	48	128	
〃	南 平	41	89	33	66	2	2	76	157	
〃	順 天	104	524	21	28	23	29	148	581	
〃	楽 安	13	24	1	1	4	5	18	30	
〃	突 山	11	76					11	76	
〃	和 順	22	132	5	7			27	139	
〃	谷 城	14	38					14	38	

全南	康 津	37	55	4	6	6	6	47	67	
〃	咸 平									所藏図書 없음
〃	長 城	20	21			1	1	21	22	
〃	珍 島	16	16	4	7	3	3	23	26	
合計		317	1077	68	115	48	72	433	1264	
濟州	濟 州	5	6	3	48	5	5	10	59	
〃	旌 義	1	2	6	25			7	27	
合計		6	8	9	73	5	5	20	86	
總計		1703	6722	378	680	263	418	2344	7820	

이로 미루어 보드라도 鄕校文庫는 全羅道地方이 比較的 慶尙道地方보다는 그 保存이 良好한 편이며, 같은 忠淸道라도 忠北보다는 忠南地方의 鄕校文庫가 좀 나은 편이다. 한편 書院文庫의 경우는 慶尙道地方이 全国 어느 地方보다도 단연 우수하게 잘 保存管理되어 왔다는 것을 고려할 때, 鄕校에 대한 輕視伝統이 이 地方에 있어서는 特히 強하게 작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書院의 효시인 紹修書院도 慶尙北道 豊基에 創設되었으며, 그후 易東, 陶山, 玉山, 屛山, 虎溪書院등 일일히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書院들이 계속 設立됨으로써 鄕校는 이들 書院의 그늘에 묻혀 度外視되어온 것이 事実이다. 같은 경상도의 慶北보다는 書院의 発達이 比較的 뒤떨어진 慶南地方이 反対로 鄕校文庫의 保存管理는 前者보다 잘 되어있는 편이다. 即 一般的으로 말한다면 書院文庫가 発達한 고장에서는 鄕校文庫가, 反対로 鄕校文庫가 発達한 고장에서는 書院文庫가 各各 뒤떨어지고 있다는 相反되는 現象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들 鄕校에 保管되고 있는 書冊들의 內容은 四書三經등 経書類와 個人文集이 가장 많고 그 밖에 伝記, 儒家類등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書籍을 가장 많이 保管하고 있는 南原鄕校의 경우를 보면(表〈7〉參照) 文集類가 56種 205冊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歷史類 34種 159冊, 伝記類 30種 58冊이다. 歷史類가 많은 것은 各種 院宇誌等 雜同散異들이 包含되어 있기

表〈6〉 鄕校文庫所藏図書分布

冊数 / 道別	50~99	100~149	150~199	200~249	25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799	800~899	計
서울 및 京畿	1											1
江原												
忠北		2										2
忠南	3	1		1								5
慶北	2											2
慶南	1	6	2	1	1	1						12
全北	2	1	1	1	2		1			1		9
全南	2	2	1					1				6
済州	1											1
計	12	12	4	3	3	1	1	1		1		38

表(7) 南原鄕校所藏図書分類別統計

類別 \ 冊数	種数	冊数
経書類	20	99
政書類	3	60
儒家類	3	4
小說類	2	38
類書類	2	122
歷史地理類	34	159
伝記類	30	58
文集類	56	205
計	150	745

때문이며, 이러한 종류의 도서를 모두 除外하면 数種에 不過하니 経書類보다 떨어지는 셈이다.

文集類가 많은 것은 그 大部分이 近者湖南地方에서 刊行된 것이 많이 包含되었기 때문이며, 19世紀 以前에 刊行된 文集은 別로 없다. 書院과는 달리 오래된 文集이 없다는 것은 鄕校를 軽視한 李朝 儒林社会의 또 하나의 断面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即 文集을 刊行하였을 경우 그 配布 対象이 한 門中을 中心으로한 個人学者, 書院等이며, 鄕校는 대체로 그 対象에서 除外된 것으로 생각된다. 18世紀의 것으로 推定되는 全州 鄕校의 書冊目録(附録Ⅱ, 参照)에도 文集類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文集類의 図書를 鄕校에 寄贈하게 되는것도 20世紀 以後에 나타난 現象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다. 新学問이 들어오고, 諸般文物이 近代化됨에 따라, 漢文에 대한 理解와 知識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자 近者에 와서는 書院이나 鄕校가 다같이 그 地方 漢文学者들과는 가장 가까운 存在가 되었다.

아울든 鄕校文庫의 本来的인 性格은 小学과 四書三経 위주의 極히 制限된 小文庫(micro library)였다는 것은 現存하는 鄕校文庫를 通해서도 알 수있다. 南原鄕校의 경우는 完帙本이 많은 四書三経과 그 諺解本들을 保管하고 있다.

어느 鄕校나 다 같이 共通的으로 保管하고 있는 図書는 光武8年 (1904)에 刊行된 乾, 坤 2帖으로 構成된「孔夫子聖蹟図」이다. 冊이 전혀 없다고 報告한 鄕校들도 이 冊은 거의다 保管하고 있는 것 같다. 例를 들면 筆者가 直接訪問한 全北의 雲峰鄕校도 孔夫子聖蹟図만을 特別히 높은 場所에다 奉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鄕校에 保管되고 있는 図書目録에는 四書三経을 위시하여 高麗史등 42種 257冊이 되나 現在는 全無하다. 그리고 10冊以下의 書籍을 保管하고 있다고 報告한 17개 鄕校들도 위의 孔夫子聖蹟図 만은 例外없이 다 包含하고 있었다.

蔵書가 比較的 많은 南原, 順天, 高敞등 諸鄕校도 日帝時代와 解放 以後에 刊行된 書籍들을 除外하면 그 数는 매우 적어진다. 그리고 壬辰乱 以前의 冊들은 거의 없으며 筆者가 実地 調査한 鄕校文庫에서도 전혀 볼 수 없었다. 前章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国家에서는 鄕学의 振興을 위하여 全国各鄕校에 자주 書籍을 内賜한 記録이 있는데 이들 壬乱前 冊들은 兵火中에 灰燼되고, 또는 倭兵들에 依해 掠奪되어 日本으로 移送된 것도 적지 않다. 壬乱前 韓国本을 많이 保有하고 있는 日本의 蓬在文庫 속에는 現在도 全羅道 光州鄕校의 表識이 있는「書伝大全」이 있다. 이것은 한例에 不過하지만 壬乱時 日本으로 搬出된 書籍은 莫大한 量에 達하며 이를 위해 豊臣秀吉은 宇喜多等 諸武将과 僧侶인 恵瓊 等을 시켰다.[29]

이와 같이 戦争의 被害는 壬乱뿐만이 아니라 六·二五動乱도 마찬가지였다. 現在 冊이 전혀 없다고 報告한 大部分의 鄕校들은 그 理由를 六·二五動乱에 두고 있다.

---

29) 中村栄孝 : 朝鮮; 風土, 民族, 伝統. p. 247~258(東京, 吉川弘文館, 1971).
徳富猪一郎 ; 壬辰の役と朝鮮文化の移入及びその感化(積翠先生華甲壽記念論纂, 1942. p. 1~9)
三木栄 ; 養安院蔵書中の朝鮮医書(朝鮮学報, 第1輯, 1951. p. 263~270)

Ⅵ. 結 論

앞에서 살펴 본 바를 다시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鄕校文庫는 朝鮮朝의 各級 教育文庫중 四部学堂文庫와 더불어 가장 먼저 形成된 文庫이지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 要因 때문에 書院文庫처럼 크게 発達하지 못하였다.

(ㄱ) 鄕校는 그 教育対象이 童蒙이었음으로 그 教育内容도 小学과 四書의 範囲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蔵集되는 書籍의 範囲도 자연히 制限되니 書院文庫의 蔵書만큼 多様性이 없었으며 増加率도 극히 微微하였다.

(ㄴ) 朝鮮朝의 中期以後는 官学의 頽弊가 점점 甚하여져 마침내는 私立教育機関인 書院이 創設되어 그 数가 급격히 増加함에 따라 官学教育機関인 鄕校는 더욱 그 빛을 잃게 되었다.

(ㄷ) 그리하여 当時 儒林社会에서는 鄕校를 軽視하고 書院을 重視 하는 風潮가 높아져 子弟를 鄕校에 入学시키는것을 꺼리끼기도 하였다. 鄕校軽視의 풍조는 鄕校蔵書의 増加를 阻害하는 가장 큰 要因이 되었다.

(2) 鄕校文庫의 維持状態는 嶺南地方 보다는 湖南地方이 良好한 편으로 書院文庫와는 反対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特히 嶺南에 있어서는 退溪를 師匠으로 한 儒林의 結束이 그 어느 地方보다도 強하여 鄒魯之鄕 이라고 일컬어질 程度로 退溪의 学風은 長久한 月을 두고 그 門人들에 依해 継承発展되어 排他的인 嶺南, 特有의 風土를 이룩함으로써, 鄕校보다는 書院을 重視하는 頃向이 높았다. 書院의 嚆失인 白雲洞書院이 創建된것도 嶺南의 豊基이다.

(3) 鄕校文庫의 基本蔵書는 小学과 四書三経이며 그 밖에는 朱子学 中心의 儒家類와 諸史等 図書이다. 따라서 校生들의 読書範囲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仏教는 勿論이오, 老莊 및 其他 雜流의 図書는 禁止되었으며 또한 農学이나 医学等 技術系 書籍도 収蔵하지 않았다.

(4) 壬乱은 鄕校蔵書에 큰 被害를 입혔으며, 灰燼 또는 倭兵들에 依해 日本에 搬出된 量도 적지 아니하다.

(5) 現在 鄕校에 保存되고 있는 書冊들의 大部分은 日帝와 解放以後 刊行된 近者의 것으로써, 오래된 貴重本이나, 史料的 価値가 높은 図書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点에서도 書院文庫보다 文庫로서의 価値가 떨어지고 있다.

(6) 図書館은 그것이 属해 있는 教育機関의 教育状況을 가장 잘 反映해 주고 있다는 事実을 鄕校文庫의 경우에서도 또한 볼 수 있었다.

(7) 現存하는 鄕校文庫를 하나의 特殊文庫로 育成発展시키기 위한 方案이 政府関係当局者에 依해 講究되어야 하겠다.

例를 들면 将次 設立될 郡立図書館의 한 分館으로써 利用될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献

各道冊板目録, 1冊(34張) 写本, 憲宗6年(1840)

慶州府校院書冊目録, 1冊(32張) 写本, 〔高宗年間〕

高麗史, 3冊, 影印本, 서울, 延大東方学研究所, 1961

群書標記, 正祖(朝鮮)編著. 370p. 影印本. 서울, 新韓書林, 1970

金 侊 著: 海東文献総録. 835p. 影印本. 서울, 新韓書林, 1969

中村栄孝著: 朝鮮; 風土, 民族, 伝統. 東京, 吉川弘文館, 1971

徳富猪一郎: 壬辰の役と朝鮮文化の移入及びその感化(積翠先生華甲壽記念論纂 1942)

前間恭作編: 古鮮冊譜. 3冊. 東京, 東洋文庫, 昭和32年(1957)

三 木 栄: 養安院蔵書中の朝鮮医書(朝鮮学報, 第1輯, 1951)

徐居正 著: 四佳文集, 62巻15冊, 木板本, 粛宗31年刊(1705)

西岳書院誌: 1冊(79張) 京城, 金海金氏大同宗約所, 昭和8年(1933)

서울大学校 東亜文化研究所編: 奎章閣図書韓国本総目録. 691p. 서울, 1965

書院 可攷：1冊(56張) 写本
書院 謄録：禮曹(朝鮮)編, 6冊, 写本, 仁祖 20～英祖 18年(1642～1742)
徐 有 榘：鏤板考, 7卷 1冊, 京城, 大同出版社, 昭和16年(1941)
成均館大学校教育学科 編. 全国鄕校現況調査. 1971
紹修書院書冊置簿：1冊, 写本, 萬曆30年(1602)
烈邑院宇事蹟：10冊. 写本
李光麟 著："鮮初의 四部学堂" 歷史学報, 第16輯
李肯翊 著：燃藜室記述. 12冊. 서울, 民族文化推進会, 1967
李萬珪 著：朝鮮教育史. 上, 下卷 2冊. 서울, 乙酉文化社, 4282(1949)
朝鮮王朝実録：48冊. 影印本. 서울, 国史編纂委員会, 1955～1958.
朝鮮王朝法典集. 4冊, 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72.
朝鮮之図書館 影印本. 서울, 亜細亜文化社, 1972.
增補文献備考, 弘文館(朝鮮)編, 250卷 52冊. 隆熙 2年(1908)
太学志：上, 下卷 2冊. 影印本. 서울, 栗谷文化院, 1970
学校謄録：禮曹(朝鮮)編. 8冊. 写本. 仁祖 7年～景宗元年(1629～1721)
韓基彦 著：韓国教育史. 457p. 서울, 博英社, 1963.
希顯堂書冊節目, 写本 1冊. 全州鄕校.

附録 I：全州鄕校 希顯堂書冊節目

一、周易大全十四冊 諺解五冊 書傳大全十冊 諺解五冊 詩傳大全十冊 諺解七冊 論語大全七冊 諺解四冊 孟子大全七冊 諺解七冊 庸学大全 及諺解 各一冊 合 八十冊 是齊

一、每冊第一張 及末張 踏本堂図書 以為表別 是齊

一、每冊粧衣 又加別紙 藏之一櫃 鎖之以鐵 任之庫直 是齊

一、本堂儒生 可讀可覽 而雖学任 及接儒 之親戚切緊間 不得私自與授出入於游藝門外 是齊

一、本堂遺來書冊 只有小学 雅誦 全章韻考三件矣 連年見失 不勝咄歎 自今以後 則讀覽此書者 不可私自出入 庫直処書給手標 然後 啓牓出冊 覽畢

則更為入櫃還奠手標 以防遺失之弊 如或遺失 則手標主儒生 即自徵当充印 一依尊經閣書冊出入例 是齊

一、雖以営府分付 欲為借去 不過其禮吏所弄 断勿聽施 是齊

一、居接儒生 狼籍散置 或恐有點汚之弊 各別戒勅 隨破隨補 是齊

一、学任交遞時 翻閲巻数 以為傳掌 而如或有一冊遺失之弊 其時学任 当自往充印

一、居接儒生 読是書成就者 出於栄途 則初到官 必備置七書一帙 于本堂 是齊

附録Ⅱ. 全州鄕校希顔堂書冊目録

詩傳大全 十卷
諺解 七卷
書傳大全 十卷
諺解 五卷
周易大全十四卷
諺解 五卷
論語大全 七卷
諺解 四卷
孟子大全 七卷
諺解 七卷
中庸具解 二卷
大学具解 二卷
小学大全 五卷
諺解 五卷
綱 目七十七卷
朱書節要 十卷
禮記 十二卷
左傳 十卷
史記評林三十三卷
鴻史 十五卷
古文後集 五卷
彙語 十二卷
史要聚選 四卷
白眉故事 四卷
名臣録 二十卷 内合部為十九卷
唐詩 五卷
杜律 二卷
事文類聚七十卷

A Study on the Hyang-Gyo Libraries in the Yi Dynasty

Lee, Choon-hee*

<Abstract>

The libraries of the various learning institutes in the Yi Dynasty may b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1) The Hyang-Gyo library (the public school libraries in rural districts)

2) The Sabu-Hankdang library (the public school libraries in the Capital)

3) The Sōwōn library (the libraries of private learning institutes)

4) The Jyon-Gyōng-Gak library (the library of the Sung Kyun Kwan which was the highest learning institute in the Yi Dynasty)

For the historical study of Korean libraries as well as its education and culture the Hyang-Gyo libraries hold an very important position, but undeservedly its study has been neglected.

In this paper, the writer made an effort to grasp the various function of the Hyang-Gyo libraries with its historical background.

* Professor, Dept. of Library Science, Sung Kyun Kwan University.